

자문교수 ※ 가나다 순

한국측(64명)			
강제훈(고려대)	문옥표(한국학중앙연구원)	오세정(충북대)	정창원(제주대)
강철구(배재대)	문정인(연세대)	요시모토 코지(경상대)	조진희(숙명여대)
고유환(동국대)	민영성(부산대)	유요한(서울대)	조춘범(성결대)
김미현(이화여대)	박경하(중앙대)	이기성(한국전통문화대)	지현숙(배재대)
김민구(전남대)	박대재(고려대)	이진한(고려대)	채성식(고려대)
김민규(동아대)	박삼현(건국대)	이창민(한국외대)	최정기(전남대)
김상준(연세대)	박용순(성결대)	이향철(광운대)	최영환(동국대)
김수갑(충북대)	박치완(한국외대)	임대근(한국외대)	최우용(동아대)
김순전(전남대)	박훈하(경성대)	임영진(전남대)	최희식(국민대)
김영순(인하대)	백승국(인하대)	임윤규(부산외대)	표민찬(서울시립대)
김용의(전남대)	사이토 아케미(한림대)	임혁백(고려대)	표정욱(숙명여대)
김재봉(한국해양대)	서영대(인하대)	장세훈(동아대)	허남춘(제주대)
김종대(중앙대)	서영표(제주대)	장원호(서울시립대)	황기식(동아대)
김치환(제주대)	송호섭(서강대)	전홍찬(부산대)	
김학권(원광대)	신진욱(중앙대)	정근식(서울대)	
김현철(서울대)	양준호(인천대)	정병호(한양대)	
김혜숙(이화여대)	연규홍(한신대)	정승연(인하대)	

일본측(64명)		
가나즈 히데미(리쓰메이칸대)	야마오카 미치오(와세다대)	이토 마사유키(아이치가쿠인대)
가시오 나오키(게이오기주쿠대)	야스다 타케히코(니혼대)	이희석(조사이대)
고바야시 요시아키(게이오기주쿠대)	오니시 유타카(고베대)	전재욱(독곡대)
나카 스미오(교토부립대)	오사 시즈에(고베대)	카토 케이키(히토쓰바시대)
니시무라 아키라(도쿄대)	오오시마 타쿠(조사이국제대)	카츠라지마 노부히로(리쓰메이칸대)
마키노 에이지(호세이대)	오오이시 요시히로(메이지대)	카타오카 류(도호쿠대)
미와 켄지(일본교육대학원대)	오오키 야스시(도쿄대)	켄조 테이지(치바대)
미츠이 타카시(도쿄대)	오자와 토모하루(규슈국제대)	쿠라바야시 마사토(조사이국제대)
사노 마사토(도호쿠대)	오자키 이치로(훗카이도대)	쿠리타 루미코(조사이대)
사노 켄지(가나가와대)	오카다 히로키(고베대)	키무라 칸(고베대)
사도 아키히로(쥬교대)	오카모토 아키라(히로시마여학원대)	키미야 타다시(도쿄대)
사이토 요시히코(오사카경제대)	오카모토 타키코(메이지가쿠인대)	키시에 신스케(도쿠시마대)
사지마 아키코(후쿠오카여학원대)	오타 오사무(도시사대)	타니모리 마사히로(코난대)
사카모토 타다시(나고야외국어대)	와타나베 사토시(시즈오카현립대)	테루야 유키오(가나가와대)
삿사 미츠아키(리쓰메이칸대)	요시다 유타카(히토쓰바시대)	토자키 하지메(와세다대)
센 세이키(조사이대)	우메야 키요시(고베대)	토코로 노부유키(니혼대)
소에야 요시히데(게이오기주쿠대)	유미야마 타츠야(도쿄공업대)	하라 토모히로(테이쿄대)
스가와라야스노리(훗카이가쿠엔대)	이구치 미츠크(도시사대)	하세가와 코우(훗카이도대)
스기하시 타카오(리쓰메이칸대)	이노우에 토모카츠(사이타마대)	호시노 하루히코(후쿠오카대)
시마조노 스스무(조치대)	이연숙(히토쓰바시대)	후카가와 히로시(규슈대)
시미즈 아키히로(테즈카야마다대)	이와사키 타케히코(구마모토대)	
야나타 스구루(와카야마다대)	이와이 히로시(테즈카야마다대)	

포럼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 이원범(동서대)

분과	한국측	일본측
1. 국제관계	이철호(부산대)	고하리 스스무(시즈오카현립대)
2. 정치·법률	임석준(동아대)	시미즈 유이치로(게이오기주쿠대)
3. 경제·경영	박성빈(아주대)	다카세 코이치(와세다대)
4. 역사	송양섭(고려대)	하야시 유스케(메이세이대)
5. 언어·문학	금종애(충남대)	사이토 마레스(도쿄대)
6. 사회·젠더	신지원(전남대)	우오즈미 아키오(조사이국제대)
7. 종교·사상	최종성(서울대)	가와세 타카야(교토부립대)
8. 민속·인류	박환영(중앙대)	사쿠라이 요시히데(훗카이도대)
9. 문화·예술	신광철(한신대)	하마다 요우(테이쿄대)

오시는 길



전철 - JR ‘쿠사나기역’ 남쪽출구(현대·미술관입구) 하차 도보 15분
 - 시즈오카철도 ‘현림미술관앞역’ 또는 ‘쿠사나기역’ 하차 도보 15분

연락처
시즈오카현립대학(국제학술대회장)
 (422-8526)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스루가구 타니타 52-1
 Tel +81-54-264-5345

호텔 아소시아 시즈오카(대회사무국 지정숙소)
 (420-0851)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아오이구 구로가네초 56
 Tel +81-54-254-4141

한일차세대학술포럼 사무국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소센터 내
URL www.japancenter.or.kr **Tel** 051-320-1900~1
E-Mail japancenter@dongseo.ac.kr **Fax** 051-320-1902

한일차세대학술포럼
제15회
국제학술대회

공동테마
동아시아의 문화와 그 교섭

기간 2018년 6월 30일(토)~7월 1일(일)
장소 시즈오카현립대학 쿠사나기캠퍼스
주최 한일차세대학술포럼
주관 시즈오카현립대학 대학원 국제관계학연구과
 시즈오카현립대학 현대한국조선연구소센터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소센터
공동주최 시즈오카현
협찬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
 동서대학교
후원 일본국 외무성
 주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모시는 말씀



한일차세대포럼은 올해로 제15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교의 역할을 흔쾌히 맡아주신 시즈오카현립대학의 키토 히로시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과 시즈오카현 우호교류협정 체결 5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이번 대회를 공동주최하고, 기조강연을 흔쾌히 맡아 주신 가와카즈 헤이타 시즈오카현 지사님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018년은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한반도 군사분계선에 있는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 회담을 기점으로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형성을 위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의 정치·외교적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의 지각변동이 동아시아 전역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문화교류의 확대를 통한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취지로 이번 대회에서는 ‘동아시아의 문화와 그 교섭’을 전체테마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도쿄에서 제7회 한중일 정상회의가 약 2년 반 만에 개최되었습니다. 2008년 제 1회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동아시아 3개국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도 고등교육분야의 협력확대를 통한 상호이해 촉진의 중요성이 재확인 되었습니다. 본 포럼은 지금까지 14년간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한일, 그리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짚어갈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선배가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본 포럼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한일차세대학술포럼 대표
 동서대학교 총장
장제국

